

# 진주 무촌 통일신라유적 출토 건축재와 목제품의 수종

윤용희\*·박원규\*·손병화\*\*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목재·종이과학전공,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

## I.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에서는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한 진주무촌 유적 II지구 건물지(통일신라)에서 출토된 총 14점의 목재를 대상으로 수종식별을 하였다.

수종식별은 시료가 토탄층에 묻혀있던 목재임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단단하여 열화가 덜 진행되어 있어 포매없이 면도칼로 얇게 박편을 제작하였다.

시료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외관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을 구별하여 최대한 시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면도칼로 얇게 박편하였다. 박편을 슬라이드글라스에 올려놓고 글리세린을 떨어뜨린 다음 커버글라스로 기포가 안 생기게끔 덮었다. 광학현미경(니콘 E-200)으로 삼단면의 세포를 관찰하였다. 각 단면의 특징들을 디지털카메라(니콘 Coolpix 4500)로 촬영하였다.

수종식별은 ‘목재조직과 식별’(박상진 등, 1987), ‘한국산 목재의 구조’(이필우, 1994), ‘주요유용수종의 조직특성’(박상진, 1987), ‘국산 활엽수재의 목재조직’(박상진, 1990)을 참조하고 충북대 산림과학부 소장 목재재감 프레파라트로 대조하였다.



사진 1. 1028호- 바닥출토 木製品片: 소 나무류; 경남고고학연구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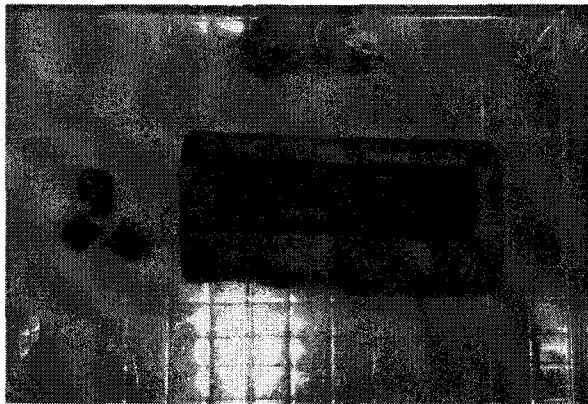


사진 2. 120호 우물 벽석내부출토 두레박편: 밤나무속; 경남고고학연구소 사진

## II. 결 과

진주 무촌유적 II지구에서 발굴된 목제품 14점 중 12점은 상수리 나무류, 소나무류, 산뽕나무 목재 4 수종과 박 파편 1종으로 분석되었고 2점은 수종식별이 불가능하였다. 그 중 149호 수혈- ④번 시료는 이상조직이었으며, 149호 수혈의 木皮吸着 점토 시료는 점토에 목재가 매우 얇게 붙어 있어서 식별이 불가능하였다.

표 1. 진주 무촌유적 II지구 수종식별 결과

Sample No.	출토유구	수종
1	N13W1grid- 주혈21-ㄱ	밤나무속
2	N13W1grid- 주혈21-ㄴ	밤나무속
3	N13W1grid- 주혈21-ㄷ	밤나무속
4	120호 우물 벽석내부출토 두레박편	밤나무속
5	149호 수혈- ④	식별불가
6	149호 수혈- 木皮吸着 점토	식별불가
7	149호 수혈- 木皮下部 出土 木材片	상수리나무류
8	1020호- 木材履片	소나무류
9	1028호- 바닥출토 木製品片	소나무류
10	1063호- 두레박편 (下部 165cm 이하 出土)	박편
11	1068호- 28 두레박편	소나무류
12	1096호- ① 두레박편 (18m이하 出土)	소나무류
13	109호- ⑥ 木製品片	상수리나무류
14	1063호- ① 불탄 木材片	산뿔나무



그림 3. 밤나무의 횡단면: 대관공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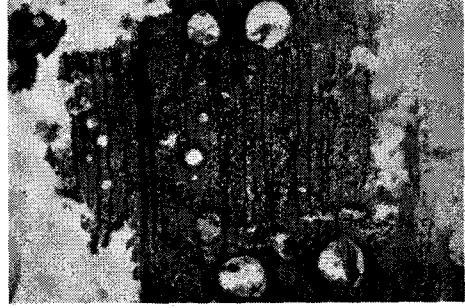


그림 4. 상수리나무류의 횡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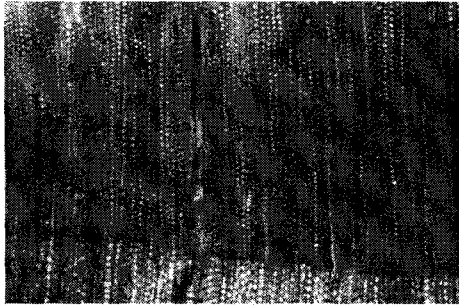


그림 5. 소나무류의 횡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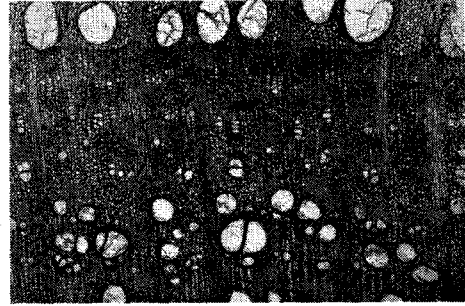


그림 6. 산뽕나무의 횡단면: 소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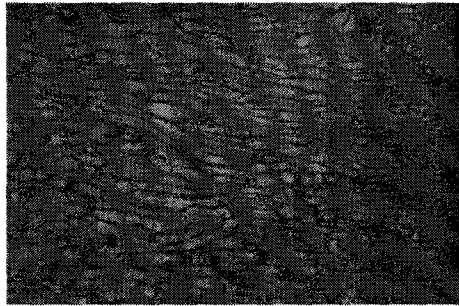


그림 7. 박의 조직(발굴된 것)



그림 8. 박의 조직(청주덕성초교 현생)